

## 청소년의 성문제와 목회상담

김 영 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을 시도했다. 먼저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제를 연구한 논문 및 자료들을 선행 연구했다. 그런 다음에 청소년의 성의식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문제를 성욕증가, 자위행위, 혼전성관계, 데이트, 사회화습적 접근 등의 5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청소년의 성문제 5가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혼전성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혼전성관계의 원인과 논쟁을 다루었고 혼전성관계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연구했다. 그런 다음에 청소년 성문제를 위한 목회상담적 대안을 10가지로 제시했다. 본 연구의 10가지 대안은 오성춘의 청소년신앙교육의 목표 5가지 항목과 McDowell과 Hostetler의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8가지에 근거해서 작성했다. 청소년성문제를 문제를 위한 10가지 목회상담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이야기에 경청하라 ② 성교육의 현장으로 가정과 부모를 활용하라 ③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실천하라 ④ 청소년들의 바른 신앙과 가치관 확립을 도와라 ⑤ 청소년들의 삶을 섹스 외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도록 격려하라 ⑥ 청소년성교육을 담당할 지도자를 육성하라 ⑦ 성문제에 실패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⑧ 성문제에 대한 타협적인 자세를 배격하라 ⑨ 성적만족에 관한 체감의 법칙을 숙지시켜라 ⑩ 청소년들에게 성경적인 금욕을 선택하도록 권면하라.

**중심단어 :** 청소년, 성문제, 혼전성관계, 목회상담, 10가지 대안.

---

• 논문 투고일: 2010년 03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3일  
\*장로회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8일

## I. 여는 글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성과 성적표현은 현대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큰 특징이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적 메시지를 받고 있다. 성을 높이 평가하는 현대문화는 소비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을 상품화시켰고 그릇된 성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표현의 방법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것은 전통적인 성윤리를 의문시 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 되었다. 결혼과 성행위의 의미, 독신자의 성적표현, 현대의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임신중절과 인공수정을 둘러싼 문제들과 같이 도외시 할 수 없는 논쟁들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적인 혼돈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성적으로 변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학령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갈등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혼돈된 성적인 정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갈등은 증폭된다.

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공동체의 청소년의 교육과 상담에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의 부모나 교회의 청소년지도자나 목회자들은 성적인 문제로 갈등 중인 청소년을 도와서 그들을 건강한 신앙인격의 소유자로 양육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문제를 목회상담이나 기독교교육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목표를 두고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먼저 청소년의 성문제를 연구한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문인성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sup>1)</sup> 혼전 성 허용성은 하위영역인 키스, 가벼운

1) 문인성,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11-18.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구분에 따른 성에 대한 관심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혼전 성관계의 하위영역인 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등의 허용성에서는 비기독교 청소년이 기독교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문인성의 연구가 청소년의 성문제를 남·여의 차이로 비교하였고 신앙의 유무에 따라 성의 허용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것은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재형은 2007년 9월 3일부터 18일에 걸쳐 대구시내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남자 117명, 여자 102명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조사했다.<sup>2)</sup> <성교행위는 누구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의 질문에 부부사이에만(48.4%), 사랑한다면 이성친구와도 가능(42.5%)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순결을 지켜야 하느냐?>의 질문에 다수의 학생(71.6%)이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자신에게 소중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41.8%).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한 학생(26.7%) 중에는 그 이유로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 (40%)의 응답이 나왔다. <순결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 (68%)와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된다' (23.2%)의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순결관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질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응답학생들의 순결에 대한 의식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sup>3)</sup> 그리고 남녀의 순결책임에 대해서는 남녀가 모두 책임이 있는 쪽으로 반응했다.

함희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 420명을 신앙배경에 따라 성의식

2) 김재형, “성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18-25.

3) 부부이외에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수가 49.7%가 나왔는데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6.7%였다. 같은 문제를 놓고 큰 차이를 보이는 응답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들 각자의 순결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함희영,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대학원, 2007), 44.

을 조사했다.<sup>4)</sup> 이 조사의 결과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간의 성의식과 성적태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기독교청소년들도 현대사회의 성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기독교적인 신앙만으로는 사회의 성적문란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전성허용의 영역에서는 비기독교청소년과 신앙배경을 가진 기독교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교회와 가정의 성교육이 전반적인 성의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혼전성허용성의 불가에 대한 것만을 강조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미경은 부산, 창원, 김해시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교 527명을 대상으로 일반학교 학생들과 교회학교학생들의 성인식,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 및 성교육과 상담 등의 3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연구했다.<sup>5)</sup> 이 연구에서 첫째, 교회학교청소년이나 일반학교청소년 모두가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성경험도 증대되고 있다. 둘째, 교회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일반학교 학생들처럼 남학생의 경우 자위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키스나 포옹의 경험은 일반학교 학생들의 50%에 불과했으며 애무를 한 경험이나 동성애의 경험에 있어서도 절제된 생활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회학교청소년들과 일반학교청소년들의 성교육과 상담의 경험은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교회학교청소년들도 성고민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친구와 나누거나 혼자 했다. 이미경의 연구는 청소년의 성교육과 상담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위의 청소년의 성의식, 성적태도, 성적허용 및 성교육과 상담의 유무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5가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사이에는 성의식이나 성에 대한 관심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둘째, 청소년들의 남녀차이에 따른 성적인 관심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인 관심이 더 많다. 셋째, 남자 청소년의 자위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5) 이미경, “교회학교 청소년의 성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1998), 48-49.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닳뜨, 키스나 포옹 같은 성적 행동을 기독교청소년은 비기독교 청소년보다 적게 허용하면서 성적행동에서 절제를 보였다. 다섯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상담이나 성교육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갖지를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청소년기의 성의식과 성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떠는 글

### 1. 청소년기의 성의식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적발달과 관련된 생식기능이 완숙되는 신체적 발달 기로서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인간의 생식본능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여 12세에서 22세의 연령층이다.<sup>6)</sup> 청소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연령, 신체적, 생리적 성숙도 및 심리적 성숙도 등이 있다. 신체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적성숙이 이루어질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때를 청소년기로 본다.<sup>7)</sup> 청소년기의 연령층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를 중·고등학교 시절인 중학교에 입학하는 평균연령인 14세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인 19세까지로 제한해서 사용하기로 한다.<sup>8)</sup>

6) 김계숙,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제 28권 153호 (1989): 24-32.

7) 정옥분,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20-22.

8) 청소년기의 연령에 관하여 에릭 에릭슨은 만 12-18세로 구분했는데 인간의 성장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연령은 중고등학교연령층에 해당되지만 상급학교진학과 개인의 형편에 따라 1-3년 정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는 방황과 갈등의 시기다. 청소년들은 아직 독립된 존재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정적으로 확실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시기에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갈등과 방황의 시기에 혼돈을 겪으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상과 현실사이의 험겨운 싸움을 한다.

청소년기의 성의식은 자아기능완성의 핵심이 된다. 출생부터 발달되어 온 유아기적, 아동기적 성의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기 고유의 생물학적, 내분비계통의 변화 및 심리적 변화로 인해 잠복되어 있던 성본능이 눈을 뜨며 점차적으로 절정기에 도달하고 성인기적 성의식으로 발달된다.<sup>9)</sup>

청소년기는 성적욕구가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성적욕구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전 단계까지의 단순한 성욕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생식능력을 갖게 되며, 또한 성행동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인지적 사고를 생성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호르몬의 변화와 인지적 발달은 성적욕구와 성적 활동이 증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0)</sup>

성은 남녀의 육체적 접촉 혹은 결합을 떠올리지만, 성(性)이란 한자어에는 몸과 마음의 양면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 즉 한 쌍의 남녀가 건강한 의미에서 성적인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 교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교류도 의미한다. 그래서 성적관계의 아름다움은 양쪽이 소유한 성적성격(sexual personality)에 달려 있다. 여기서 성적 성격이란 단순히 성욕이나 성행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감정과 사고, 습관, 가치관, 태도, 신념 등 정신적인 측면도 의미한다. 개인의 성적성격은 그가 살아온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양육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적 표현의 자유스러움 속에서 성장한 사람과 지나치게 성을 금기시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성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다르다.<sup>11)</sup>

9) 김계숙,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24.

10) 노용오,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 복지론』 (서울: 구상, 2005), 164-165.

11)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184-186.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장한 환경은 그들의 성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건전한 성도덕의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성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가치관과 신념 속에서 성을 생각하고 결혼을 통한 아름다운 성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고 성에 대한 정신적 측면이 아닌 육체적 측면을 강하게 나타낸다.

## 2. 청소년기의 성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들은 신체 및 호르몬의 변화 뿐 아니라 변화자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응전략 등으로 인해 성적 태도와 행동에서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나 심리적 변화는 그들의 성문제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McDowell과 Hostetler는 청소년기의 성문제로 정욕, 자위행위, 포르노그래피, 혼전성관계, 계획없는 임신, 임신중절, 동성애, 에이즈,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들 등의 9가지로 제시했다.<sup>12)</sup> 함희영은 청소년기의 성문제로 호르몬분비에 따른 성욕증가, 자위행위, 혼전성관계, 정신분석적 접근, 사회학습적 접근 등의 5가지로 제시했다.<sup>13)</sup>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성욕, 자위행위, 혼전성관계, 데이트문제, 사회학습적 접근 등의 5가지로 연구하고 혼전성관계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 1) 성욕증가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성적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들의 성적성숙을 주관하고 성적욕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은 성호르몬의 분비이다. 남성의 성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으로 대표되는 안드로젠이며, 여성의 성호르몬은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이다. 남자와 여성의 성호르몬은

12) Josh McDowell & Bob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핸드북 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51-212.

13) 함희영, “기독교신앙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29-32.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성선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생식소에서 생산된 후 정상적으로 분비된다.<sup>14)</sup>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 성욕이 상당히 왕성한 시기이므로 순간적 충동을 이겨내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들은 섹스와 성적매력과 성적만족에 사로잡힌 문화와 부딪치게 된다. 의복스타일, 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광고계시판 등은 성적으로 유혹적이어서 청소년들의 성욕을 증가시킨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환경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증가된 성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증가된 성욕을 건강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청소년과 관계하는 부모나 청소년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제공해야 한다.

## 2) 자위행위

Gary R. Collins는 자위행위를 “자기의 성기를 자기 스스로 자극하여 오르가즘의 지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sup>15)</sup> 자위행위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공통된 범민이다. 신체적 호르몬의 분비와 이차성징(二次性徵)이 시작되는 시기는 연령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왕성해지는 반면 산업사회의 출현과 성인역할의 지불연기현상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할 수 있는 실제나이가 늦추어짐으로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욕이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인 체제와 규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을 절제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억압을 갖게 된다. 그 위에 대중매체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유혹이 점점 심각한 실정이다. 이 때 청소년들은 수음을 통한 자위로 성욕구를 해소하게 된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수음을 하게 되면 이후 결혼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Jay E. Adams는 자위행위의 결과를 “어떤 청소년들은 자위행위의 문제로 너무 큰 혼란에 빠져서 그들은 하루 종일 섹스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sup>16)</sup>고 했다. 청소년들이 더 많은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14) 함희영, “기독교신앙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29.

15)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67.

16)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70.



점점 더 그것에 매이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악순환을 겪게 된다. 자위행위와 성적인 환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박행위는 심리적으로 파괴적이다.

강박적인 자위행위는 좌절감, 권태감, 고독감,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심적 압박감, 성과 관련없는 다른 문제,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도피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성욕해소를 통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지나친 자위행위는 역기능적이다. 자위행위의 역기능적 역할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위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이미지가 자위행위로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지나친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야 하며 동시에 자위행위로 인한 그들의 죄책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3) 혼전성관계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가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남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관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게 된다.<sup>17)</sup> 이러한 추세는 현대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는 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인간들은 자기의 자유에 대해 책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외부의 주장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서로 동의하고 인격적인 존중과 나눔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갖는다면 이 행위는 남들에 의해 제재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상호간의 '책임있는 자유'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규범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으면 혼전 성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Bertrand Russel은 성은 개인의 책임과 자유에 속한 것으

17) 시라이시 고이찌, 팬더북 역, 『고교생 심리학』 (서울: 팬더북, 1990), 265.

로서 그 성을 도덕으로 억압하는 사회일수록 마음이 성하게 된다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성에 대해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미국의 경우로 젊은 여성들의 첫 번째 혼전 성관계의 평균 나이는 1960년의 19세에서 1990년대에 17세로 떨어졌다. 또한 청소년들이 17세에서 18세 나이대가 되면 진한 키스와 유방만지기를 한다. 그 연령층의 청소년들 중 약 70%가 진한 스킨십을 하며 성교행위 또한 4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sup>19)</sup> 우리나라에도 과거보다 십대들의 성행동이 더 적극적이고 혼전 성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혼전성경험자의 비율이 남녀 간의 차이가 컸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사회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의 분야는 성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청소년들에게 성적충동을 유발시키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매일의 삶속에서 새로운 성적충동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배출하고 은밀한 가운데 충족시켜 가고 있다. 혼전 성 관계를 죄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청소년들이 65.6%에 달하고 있다.<sup>20)</sup>

혼전 성관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청소년 시기의 이성교제를 들 수 있다. 고등학교의 졸업이전에 이성교제가 청소년들의 성적호기심을 부추기게 되어 혼전성관계가 성행하게 된다. 또한 또래 친구의 압력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중매체와 또래 친구의 압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미성숙한 신체에서 완성된 신체로 만드는 것이 마치 성관계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혼전 성관계의 결과로 미혼모, 임신중절, 성적으로 전염되는 병 등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런 신체 결과 이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혼전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로 인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성적 부도덕에 대한 감정도 생겨난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혼전 성관계의 원인이

18) Bertrand Russel, *Marriage and Morals*, 김영철 역 『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서울: 자작나무, 1997), 148-149.

19)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98.

20) 이승재, 『기독교청소년상담핸드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97.

되지만 동시에 결과도 된다. 혼전 성관계는 청소년에게 자기 의심, 불안, 비굴, 자기혐오 등의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따라서 혼전성관계문제는 청소년성문제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이다.

#### 4) 청소년의 이성교제(데이트)

사회의 공인 하에 이성간에 개인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형식화된 양상이 데이트이다. 데이트의 목적은 남녀가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예의와 좋은 태도를 발달시키며 나아가 적합한 결혼상대자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데이트를 통하여 남녀는 상대방을 보다 더 잘 알게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 진솔하게 알게 된다. 즉 데이트를 통해서 여성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남성은 거절당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청소년기는 이성간 데이트와 관계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이다.<sup>21)</sup> 청소년기의 데이트는 이성사이에 건강한 교제관계를 형성해서 신앙과 인격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데이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탐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데이트를 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으면 이러한 권면은 청소년기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한다.

#### 5) 사회학습적 접근

사회학습적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성문제 행동이 다른 유형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Mead는 일찍이 ‘문화적 결정론’을 우리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성문화의 영향, 특히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양육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소년의 경우 계획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

21) 이미경, “교회학교 청소년의 성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15.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임신이나 성병으로 나타난다. 전체 여고생의 0.4%인 4,700여 명이 임신을 해 이중 64.3%가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조사가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의 경우도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2)</sup>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 개인의 행동은 그 청소년 개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소속된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sup>23)</sup>

Janice Udry는 성적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생물학적 영향력의 구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호르몬의 수준을 측정하여 성적행동, 친구와 부모님의 성적태도를 평가함으로써 Udry는 사회적요인과 생물학적요인의 상호작용모형을 만들었다. 이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남자의 성관계와 관련해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성관계에 관한 관심에 있어서 사회적요인이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4)</sup> 이는 남성의 경우 주어진 자극이 성행동을 선동하기에 충분하지만 여성의 경우 성행동을 결정하기까지 사회적 제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을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나 성행동의 형성에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세대나 기성세대가 절제되고 건강한 성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성윤리나 성문화를 형성해가면 이러한 앞선 세대의 모범적인 성적 행동양식이 청소년세대로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혼전성관계의 원인과 결과

현대사회에서 혼전성관계의 확대는 세속화의 영향, 자유화의 영향,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혼전성관계의 확대

22) 이명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고찰”, 수사연구사, 「수사연구」 제203권 (2000): 16-40.

23) 변미희 · 이명순,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성의식의 관계”, 백석대학교, 「백석저널」 제8호 (2005): 76-98.

24) J. Coleman, & L. B. Hendry, *The Nature of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1999), 170.

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면을 다루고자 한다.

서구의 성문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은 첫째, 세속화라는 사회현상의 결과였다. 성문화와 관련하여 세속화란 성의 가치가 종교적 가치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가는 현상을 뜻한다. 성문화의 세속화는 성에 대한 판결의 주도권이 교회로부터 사회, 정신위생학 및 의학의 대리인들에게로 이관되었던 19세기 중반 이후의 변화를 의미한다.<sup>25)</sup>

20세기 중반 이후 성의 세속화경향은 성과 시장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성의 상품관계와 ‘사적생활’ 영역의 교환관계 속으로 흡인되는 과정들로부터 무섭게 촉진되었다. 예컨대 1980년경 미국에서만 오십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한 포로노그래피 시장, 광고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자리를 굳힌 성, 특별히 여성의 성은 담배에서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판매에 관건적인 요소가 되었다.<sup>26)</sup>

둘째, 세속화와 함께 서구사회를 주도한 자유화의 흐름은 사상의 자유와 함께 성적 행동의 자유도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산아 제한, 낙태, 이혼, 혼전성교, 동성애에 대한 관대함으로 연결됨으로써 성 행동의 자유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성에 대한 급진적 사고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다원성의 찬양” 등의 사조가 소비문화가 동반하는 쾌락주의와 선정주의와 함께 이러한 급진적인 성 이론들을 담론화 내지는 정당화시켜 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급진적인 주장으로 전통 사회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젊은이들의 정당한 성적욕구가 억압된 결과는 비참한 삶이며 성을 금욕하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 사회가 만든 성적 억압제도가 있기 때문이기에 청소년의 성행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구이므로 사회에 의

25) Jeffrey Weeks. *Sexuality*, 서동진 · 채규형 공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134.

26) Jeffrey Weeks, *Sexuality*, 135.

해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속화, 자유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증폭된 혼전성관계의 허용기조는 교회와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에 등장한 소위 신도덕 또는 상황윤리를 내세우는 성공회 감독인 John A.T. Robinson과 Joseph Fletcher는 혼전성관계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Robinson은 ‘사랑’과 ‘자유’, ‘책임’의 맥락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전제되어 있다면 성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7)</sup> Fletcher는 성경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기에 혼전 성윤리성 여부는 교리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Fletcher는 성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판단에 의해 내려져야 하고 사랑과 인격적인 동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성교는 결코 금지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sup>28)</sup> Fletcher는 “우리는 규칙이나 원리보다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딱딱하고 완고한 도덕법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성윤리는 사랑의 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9)</sup> 이와 같은 견해는 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상황이 성관계를 맺음으로 상호관계를 깊게 하고 증진한다면 그들의 성행위는 어떤 틀과 규범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도덕의 준칙은 서로의 관계를 풍성히 하고 일체감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상황윤리학자들은 혼전성관계라도 상황에 따라 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비기독교학자들이 말하는 성윤리의 패러다임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sup>30)</sup>

27) John A. T. Robinson, *Christian Morals Toda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45.

28)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142.

29) Joseph Fletcher, *Morals Responsibility: Situation Ethics At wor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137.

30)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19-21.

이러한 혼전성관계의 허용적인 영향력은 한국사회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최근에 한국사회에 몇몇 인기 연예인들이 혼전임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혔던 것은 이러한 사회조류의 한 현상이다. 한 때 혼전임신은 한국사회에서 속도위반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입 밖에 내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사회분위기는 혼전임신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만큼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관대해졌다는 표시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다수가 본 연구의 첫 부분인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혼전성관계를 쉽게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혼전성관계로 인한 청소년성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포탈 하이닥(Hidoc)은 510명을 대상으로 혼전임신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에 남성은 277명, 여성은 233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4세였다. 결과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슷하게 '사랑하거나 결혼할 사이라면 상관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8%로 '절대 안 된다' 라고 응답한 26.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종교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기독교인일지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혼전성관계의 허락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기독교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갖고 있는 청춘남녀들이 혼전에 성관계를 갖고 종종 임신도 하는 사례를 발견한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는 청소년들도 결혼을 전제로 하는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혼전성교자체를 허용적인

31) Hidoc/ <http://media.daum.net/view.html?cateid=1065&newsid=20090313163303140&p=newsispr>.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지도자들은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뚜렷한 성경적인 지식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결혼을 전제로 하는 혼전성관계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지나친 정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성관계의 절제를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다. 그러면 혼전성관계에 관한 성서적인 원리를 살펴보자.

#### 4. 혼전성관계에 대한 성서적 관점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사랑하기를 원하며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창2:18). 만약 쾌락을 위해서만 섹스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쾌락을 성교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뜻하셨던 기준이하로 인간을 전락시킨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성교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만드는 것이다. 섹스는 자신의 삶과 희망과 두려움과 감정을 배우자와 함께 깊이 나누는 것의 표현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굉장한 헌신의 표시이다. 즉 상호간의 믿음을 표현하고 서로 간에 믿음형성을 돕는 것이다.<sup>32)</sup>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죄가 그들을 묶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잠5:15-20). 혼전성관계는 기독교윤리에 있어서 언제나 중죄로 보아왔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혼전성관계를 금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한 남자가 창기와 관계했을 때 이것을 결혼으로 간주한다(고전6:16), 즉 매춘행위는 불법결혼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혼외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바울은 약혼한 남자는 그들의 성적인

32) Michael Lawson & David Skipp, 박상필 역, 『데이트를 하기 전 꼭 알아야 합니다』 (서울: 나침반, 1997), 53-55.



충동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서(고전7:36-37) 약혼한 남녀에게 있어서도 성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교에 관계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그들이 결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혼전의 성생활을 정당화하여 보여주지 않는다. 성생활은 두 사람이 합일되는 결혼의 목적에서만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Clinton Gardner는 혼전성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sup>33)</sup> “첫째, 혼전성교는 그들의 성에 대한 기준을 저하시키는 제2, 제3의 질서 없는 성교를 초래한다. 둘째, 혼전성교와 무절제한 성생활은 질병을 가져오는 율이 많다. 셋째, 혼전성교는 정서적 불안정과 정서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넷째, 혼전성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서 떠나게 한다.”

성관계는 남녀 간의 연합과 함께 그 연합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관계성들도 성관계의 핵심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소질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심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성은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성생활은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 섬김, 훈련,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혼전성관계로 이성간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비성서적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독교청소년들은 얼마 안 되어 청년기와 성인기에 도달해서 책임적인 신앙공동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성에 대한 순결함을 지켜서 혼전성관계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 5. 청소년의 성문제를 위한 목회상담

McDowell와 Hostetler는 청소년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질로서 공감, 열정,

33) Clinton Gardner, *Biblical Faith and Social Ethics*, 이강천 역, 『기독교윤리개설』 (부천: 서울신대출판부, 1980), 217.

진실성, 겸손한 정신, 정서적 안정성,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을 의지함,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 등의 8가지 제시했다.<sup>34)</sup> 오성춘은 청소년의 신앙교육의 목표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했다.<sup>35)</sup> ① 청소년들이 기독교, 성경, 및 교회에 대하여 일반적 이해를 갖도록 지도하고 상담한다; ②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의 분위기를 경험해야 한다; ③ 청소년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및 기독교적 인생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속에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 ④ 청소년들은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으로 경험해야 한다; ⑤ 청소년의 고백적 신앙을 성장시킨다. 본 연구는 McDowell와 Hostetler의 청소년상담자가 가져야 할 8가지 자질과 오성춘의 청소년 신앙교육의 5가지 목표에 근거해서 성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상담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라.

목회상담자는 청소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적인 문제는 추한 것이고 가능하며 공개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라도 잘 들어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없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다가올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성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비단 청소년의 성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열쇠는 좋은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가 백 마디의 가르침이나 지적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전제를 가지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나 교회지도자가 꼭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든든한 후원자요,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34)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31-35.

35)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8-11.

2) 성교육의 현장으로서 가정과 부모를 활용하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성교육은 단순한 성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인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의 터전이요,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부모가 성교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부모는 무엇보다 부부간의 사랑하는 삶의 본보기와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를 통해 자녀들이 가정을 자연스러운 성교육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명란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부천시 중학생을 대상-에서 성지식, 성의식, 성행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의 유무에 따라 성적인 태도나 성지식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맞벌이 부모의 학생일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성 친구, 성경험, 자위행위 등이 더 많다는 결론이다.<sup>36)</sup> 이는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에 관해서 교육할 때에도 억압된 성의 모습보다는 성의 근본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

3) 청소년 성상담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

교회는 오늘날 '왜곡된 성의 범람', '생명의 경시', '가정의 파괴' 등과 같은 시대적 징표를 주목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성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성서적인 성과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회는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경적인 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이성교재, 부부생활, 자녀교육 등에 대한 실천프로그램들을 진

36) 한명란,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부천시 중학생을 대상”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55-67.

행해서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부모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인 청소년의 성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4) 성교육의 목표를 청소년들의 바른 신앙 및 가치관의 확립에 근거하라.

청소년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섬김의 자세로 책임있게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상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은 기독교의 유산과 전통 및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과 그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상호관계성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실재를 경험해야 한다. 목회상담자는 청소년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확립해서 그들이 영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에서 전인건강을 회복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5) 청소년들의 삶을 섹스 외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우도록 격려하라.

섹스 외에 인생에는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섹스라는 환원주의적인 시각에 잡혀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회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좋은 우정을 개발하라; 둘째, 다양한 활동을 알아보고 시도해 보며 마음이 끌리는 과외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능력을 쌓아가라; 셋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라; 넷째,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조용한 시간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혼자 걷고 자전거를 타고 책을 읽고 등산을 하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라.

6) 청소년성교육을 감당할 지도자를 육성하라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을 수 있는 전문적 지도자의 육성을 시행하고 전문적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교회와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전문교사를 배출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나 목회자가 청소년의 성문제의 모든 것을 상담할

수가 없다. 또한 이성의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내담자와 같은 성을 가진 상담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상담은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연구와 경험이 필요하기에 교회는 다양한 성상담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중독이나 포르노그래피에 빠져있는 청소년과 상담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끼리 성상담전문가를 교류할 수 있다.

7) 성문제 실패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계율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죄인들이 발붙이기 힘든 공간으로 변해하고 있다. 특히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향이 더욱 크다. 그 일례로 동성연애자나 윤락녀는 교회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다. 청소년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지독한 죄인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교회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며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회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그들이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목회상담은 혼전순결에 관한 청소년의 잘못이나 실수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잘못된 성적실수에 대해서 용서상담을 활용해야 한다. 목회상담자는 청소년의 성적인 잘못만을 판단해서 상처를 증폭시키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며 기도해주면서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8) 성문제에 대한 타협적인 자세는 배격하라.

현대의 문화는 '타협'이라는 것을 평화의 진정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독교적인 원칙과 자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점차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다수의 기독교지도자들도 이 시대의 잘못된 경향과 문화에 대해서 도전을 꺼려한다.

사회가 성적인 자극과 섹스 중독증에 잔뜩 물들어 있고, '그것이 기분 좋게 여겨지는 것이라면 하라'는 식의 철학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하여 가정은 약화되고 청소년들의 인격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만일 이러한 때에 교회와 목회자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기독교인의 모습만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가 침묵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성문화의 소음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청소년지도자는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 가치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청소년의 성상담에도 적용해야 한다.

9) 성적인 '체감의 법칙'을 청소년들에게 주지시켜라.

기성세대나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스킨십 문제가 청소년들 안에 발생하고 있다. 스킨십은 친밀감을 더욱 충족시켜주는 선물이지만 서로의 관계를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뢰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 그 유혹을 끊지 못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 피해자가 될 것이다. 연인 사이에 '체감의 법칙'이란 처음엔 손만 잡지만 손잡으면 입을 맞추고 싶고 차츰 진한 포옹이나 페팅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성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는 일단 접어들면 멈추기 힘들고 애써 멈출 경우에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한 때는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육체적인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육체적인 관계를 허용한 다음에 애정이 식거나 감정의 줄다리를 하느라고 헤어지게 되어 고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장차 있을 거룩한 만남을 위해 이성교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0) 청소년들에게 금욕선택을 권면하라

모든 갈망이 천국의 이편에서는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관계 안에서건 밖에서건 우리는 성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천국의 이편에서는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성은 섹스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남성과 여

성의 몸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금욕은 어떤 문은 닫지만 일차적으로는 다른 문을 열어 놓는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금욕은 도와준다. 청소년이 동성과 이성의 모든 친구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우정을 세울 수 있도록 성적인 금욕은 가치가 있다. 청소년들의 성적인 금욕은 상호존중과 온정에 기초한 우정을 가능케 한다.

청소년기에 금욕하기로 마음먹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다. 금욕은 청소년들에게 타당한 선택이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더 만족스러운 어떤 것을 위한 선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욕은 청소년들에게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을 존중하고 풍성한 우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대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년을 위한 성적인 금욕을 선택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 III. 닫는 글

오늘날의 시대는 성적인 문화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타락하고 가치관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세대가 지향하는 문화의 개방과 세계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문화통합은 현 세대의 퇴폐와 타락을 가속화하고 선과 진리를 막아서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성적인 문화 역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성적인 환경을 그들이 극복하고 헤쳐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적인 문제를 교회의 청소년지도자어나 목회상담자들이 상담과 교육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의 성인식과 성문제를 연구한 선행논문을 살펴본 다음에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5가지 영역에서 조망해보았고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주요한 관심부분인 혼전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런 다음에 청소년의 성문제 상담을 위해서 목회상담의 역할을 10가지로 제시했지만 이것의 실천으로 다양한 청소년의 성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목회상담자가 이러한 10가지를 제대로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다.

청소년의 성문제를 위한 목회상담도 결국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의 삶의 예배화와 예배의 생활화를 위하여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성의 영역에서 전인권을 이루도록 교회의 역량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끈기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계숙.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제 28권 153호, (1989).
-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김재형. “성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 노용오.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복지론』. 서울: 구상, 2005.
- 문인성.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변미희 · 이명순.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성의식의 관계”. 백석대학교, 「백석저널」 제8호 (2005): 76-98.
-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이승재. 『기독교청소년상담핸드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이미경. “교회학교 청소년의 성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1998.
- 이명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고찰”. 수사연구사. 「수사연구」 제 203권 (2000): 16-40.
- 정옥분.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 한명란.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부천시 중학생을 대상”.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함희영.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2007.
- 시라이시 고이찌. 『고교생 심리학』. 서울: 팬더북, 1990.
- Coleman, J. & Hendry, L. B. *The Nature of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1999.
- Fletcher, Joseph. *Morals Responsibility: Situation Ethics At wor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 Fletcher, Joseph.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 Gardner, Clinton. *Biblical Faith and Social Ethics*. 이강천 역. 『기독교윤리개설』.

부천: 서울신대출판부, 1980.

Lawson, Michael & Skipp, David. 박상필 역. 『데이트를 하기 전 꼭 알아야 합니다』. 서울: 종합선교-나침반, 1997.

McDowell, Josh & Hostetler, Bob.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핸드북 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Robinson, John A. T. *Christian Morals Toda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Russel, Bertrand. *Marriage and Morals*. 김영철 역. 『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서울: 자작나무, 1997.

Stafford, Tim. *Love, Sex and the Whole Person*. 정중순 · 정인자 공역. 『아담과 이브의 편지』. 서울: 명문당, 1987.

Weeks, Jeffrey. 서동진 · 채규형 공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 Abstract 】

Adolescents' Sexuality Problems and Pastoral Counseling

**Young Keun Kim**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focussed on the role of pastoral counseling for adolescents' sexual problems. Firstly, this paper researched several previous studies on sexuality perception and problems among the youth. This paper illustrated five items including increase of sexual desire, masturbation, premarital sex, date, social learning theory as adolescents' sexual problems. This paper furthermore concentrated its study on premarital sex as the most concerning issue among the five items. This paper illustrated 10 approaches as the role of pastoral counseling for the adolescents' sexual problems. The ten items were made on the basis of Oh Sung Choon's five aims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young and McDowell and Hostetler's seven qualities of Christian counselors for the young.

The ten approaches are as follows. ① Listen to carefully adolescents' hurt story ② Utilize family and parents of the adolescents as a bridge of sexual counseling ③ Put the function of church for juvenile sex education into practice ④ Build up adolescents' right belief system and value system ⑤ Encourage up adolescents to fill up their lives with better valuable things besides sex ⑥ Bring up specialists of the adolescents' sex counseling ⑦ Accept positively the adolescents with failed experiences in sexual problems ⑧ Resist a compromising attitude against sound Christian sexual ethics ⑨ Teach adolescents the law of diminishing in sexual satisfaction ⑩ Admonish desirabl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sex.

**Key words:** adolescents, sexual problems, premarital sex, pastoral counseling, ten approaches